<반짝반짝 한국어> 2 한국인의 기대수명 81.8 년, OECD 최고

Hello and Welcome to Twinkling Korean podcast season5 episode 2.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한국어의 Stefano 입니다.

F: 안녕하세요. 진이입니다. 저희 반짝반짝 한국어 시즌 5 의 두 번째 에피소드가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지난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M: 지난주에는 어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기억의 은행 '메모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요즘에는 나이 많은 분들의 인구 비중이 높으니까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의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F: 맞아요. 그리고 이런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지요.

M: 그렇죠. 누구나 건강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대수명이 긴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F: 글쎄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대수명이 높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가장 기대수명이 긴 나라는 음, 일본?

M: 맞아요. UN 이 발표한 2005 년에서 2010 년 남녀 평균수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이 82.7 세로 1 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2 위는 82.2 세로 홍콩이 차지했고요, 한국은 79.4 세로 27 위네요.

F: 역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대수명이 길군요.

M: 네,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 등 주로 선진국 국가들이 상위권에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전 지금까지 평균수명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기대수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F: 네, 맞아요. 기대수명이라는 건 출생 시부터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생존하는 연수를 말해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기대수명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즉, 1970 년에 태어난 사람의 기대수명보다 2015 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길다는 말이에요.

M: 그렇군요. 근데 저한테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데요. 진이 씨는 어때요?

F: 글쎄요. 저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좀 일찍 죽더라도 건강하게 살다 가고 싶긴 한데 모르죠, 뭐. 마지막 순간에는 더 오래 살고 싶을지도 모르잖아요.

M: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니까 건강 관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건강은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요.

F: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 기대 수명이라는 개념도 새로 등장했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수명과 건강은 삶의 질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문제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특히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가지고 와 봤어요.

M: 흥미롭네요.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F: 네, 그럼 함께 들어보죠.

N: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보건 통계로 본 한국인의 건강 상태와 보건 의료 이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 수준의 객관적인 지표는 크게 향상됐지만, 국민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낮게 평가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8 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기대수명인 80.5 년보다 1.3 년 길고, 건강 기대 수명, 즉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기간 역시 73 년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적었습니다. 15 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았으며, OECD 평균인 69.2%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F: 저는 이 내용을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나요? Stefano 씨는 어땠어요?

M: 제가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조사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

F: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부분입니다.

N: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 이 부분에서는 조사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기대수명과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F: 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기대수명'이라는 표현이 키워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가 인색했다'라고 표현한 데서 한국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M: '인색하다'라는 표현을 돈 개념이 아니라 평가에 대해서도 쓸 수 있군요. 그럼 다음 부분 들어 볼까요?

F: 네, 그러죠.

N: 6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보건 통계로 본 한국인의 건강 상태와 보건 의료 이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 수준의 객관적인 지표는 크게 향상됐지만, 국민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낮게 평가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8 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기대수명인 80.5 년보다 1.3 년 길고, 건강 기대 수명, 즉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기간 역시 73 년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적었습니다. 15 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았으며, OECD 평균인 69.2%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F: 이번 부분이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요약한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M: 네. 병원이나 치료 시설 등 보건 수준의 객관적인 지표가 향상됐고, 기대수명이나 건강 기대 수명도 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에 든다는 내용이네요.

F: 한국인은 실제로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편이라는 조사 결과인데요.

M: 그렇지만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되네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진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F: 글쎄요. 한국인의 '건강 염려증' 때문이 아닐까요?

M: 건강 염려증이 뭔데요?

F: 자신의 건강 상태에 지나치게 예민해서 큰 병이 아닌데도 그 증상을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는 걸 말하는 표현이에요.

M: 흠...유럽 사람에 비하면 한국인이 병원에 자주 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죠. 유럽 사람들은 감기 정도로는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건강 염려증이 자신을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F: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몇 년 전부터 '웰빙'이 트렌드였잖아요.

M: 맞아요. 요즘은 건강하게 사는 법, 힐링,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F: 네. 얼마 전 LG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신체적인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신적인 건강에는 인식이 낮은 편이래요. 우리가 살펴본 신문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 정도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해 질문해 보면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우울한데도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M: 그렇군요. 전 요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힐링'이라서 한국인들이 정신적인 건강에도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F: 전보다는 확실히 관심이 많아졌죠. 그렇지만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M: 앞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보다 마음이 우울할 때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F: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국인의 기대수명과 건강에 대한 인식에 관한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기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Stefano 씨, 우리 주소 알려 주세요.

M: 우리 주소는요.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F: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M: The piece of news from above is an adapted excerpt from the article 기대수명 81.8 년 OECD 최고, '건강 양호' 응답률은 꼴찌' that appeared on Munhwa Ilbo on June the 6th 2015. Twinkling Korean,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Gilddong KFL.